

**시 김문자**

### 거미 인간

건물 외벽을 기며  
균열이 생긴 틈을 때우는 사내가  
거미처럼 내려오고 있었다,

틈이 생긴 곳 조목조목 진단하며  
기계처럼 움직이는 공구들  
살리곤 접촉제  
그가 믿고 의지하는 가족 같은 존재다

쏟아지는 햇살 온몸으로 받아내며  
긴장의 족쇄가 가슴 조여도  
밧줄이 가족의 밧줄이기에, 두려움이야  
견딜 수 있다고  
동여맨 밧줄에 힘을 준다, 절망하지 않는다,

위험 구간에서 벗어난 거미 인간  
땀이 흥뻑 젖은 얼굴에 밝은 미소가 환하다,  
가족의 밧줄가락 소리 속에  
웃음꽃이 피어날 저녁이 오고 있었다.

**약력**

- ▲아시아서석문학 등단
- ▲광주시인협회, 광주문인협회 회원
- ▲문인협회 인터넷 시인 백일장 대상 수상
- ▲시집: '외로움을 만지다', '다시 꽃피울 준비'



**시 신해자**

### 동적골 봄날

꽃 속에 푸르름이 춤추는  
동적골 계곡물  
금강송은 세월을 자랑하고  
자작나무는 하늘로 키재기를 하며 오른다

산새들은 산나서  
식구들 늘었다고 재잘거린다  
벚꽃은 사랑의 씨앗 버찌가  
주렁주렁 산새들 꿀맛이다

산벚꽃들 솟아올라  
숨바꼭질한다  
하늘빛 담은 개울 속 피라미가  
활기차게 이리저리 헤엄친다

영산홍 붉게 물들 때  
사람들 가슴에도 꽃물 든다  
오월 꽃잎 진자리에  
연둣빛 사랑은 자라고 있다

**약력**

- ▲'조선문학' 시신인상, '순수문학' 수필 작품상
- ▲광주시협문학상, 소파문학상, 영랑문학상 수상
- ▲광주문협 부회장, 광주시인협회 부회장
- ▲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부이사장, 국제PDA한국본부 회원
- ▲저서: '내 마음의 허안새', '보름달 여인' 외다수



**시 하현규**

### 깨어진 컵 하나

생일 선물로 회사 사장이 컵 1쌍을 주었다.  
찬장 한 칸에 간직했다.

퇴직하고 부부가 차도 마시고  
마주하고 지난날 추억도 이야기했다.

컵에는 빨간 장미꽃 무늬에  
벌과 나비가 꿀을 먹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.

오늘은 자기가 커피를 타 줘!  
알았어, 내가 타 줄게.  
"나는 적당한 물을 못 맞추겠어."  
엄살 부리지 마. 애교의 소리다.

한 세대를 품었던 컵을  
설거지하다 1개를 깨버렸다.

당그머니 놓여진 컵  
혼자만 남은 부부 같다.

**약력**

- ▲'산문의 시' 제1회 문학예세이 등단
- ▲'산문의 시' 제19회 산문의 시 등단
- ▲광주문인협회 회원
- ▲산문의 시 작가회 회원



**수필 허문정**

### 이삭꽃

연세가 많은 분의 등을 밀어 드렸다.  
흘깃 가슴팍을 보니 돌보지 않은 무덤처럼  
젓가슴이 낮게 내려앉았다. 건포도 같은 젓  
꼭지가 생의 꼬투리인양 달려있다. 긴 여정의  
마침표 같기도 하고 육망의 마지막 징표  
로도 보였다. 고개 숙인 이삭 같은 모습에서  
순간 꽃의 의미가 다가왔다.

이게 바로 '이삭꽃'이구나!  
잘 여문 이삭은 생의 마무리이자 눈부신 완  
성이다. 그 자체로 풍요이며 만족이다. 완숙  
한 몸이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며, 새봄에 싹  
을 틔울 희망의 기다림이다. 하지만 생의 끝  
자락에 서 있는 여인네의 젓꼭지는 완숙의 느  
낌을 넘어 처연함으로 다가왔다. 떨어져 거름  
이 되기 위한 무표정한 순종, 그 비움이 쓸쓸  
하게 느껴져 삼천 년에 한 번씩 핀다는 우담  
바라처럼 고귀한 꽃의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

다. 살아온 날을 감사하고 싶은 마음에서다.  
어린 날, 추수가 끝난 논바다에서 벼 이삭  
을 주위보았다. 그때 벼이삭에서 싹이 튼 것  
을 보았다. 가을이지만 한 번 더 싹을 틔워 결  
실을 보여줄 심산이었을까. 임종하는 자리에서  
입만 달싹거리리는 사람처럼 벼 이삭이 티  
운 싹은 부질없게만 느껴졌다. 벼이삭이 보  
여준 새싹은 자기 존재의 마지막 확인이었다  
고 생각한다. 난(蘭)도 너무 보대끼면 본능을  
다하여 꽃을 피운다고 한다. 자기의 소진에  
대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을 것이다.

어머니의 젓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눈치 챘  
을 때는 이미 병이 깊어진 뒤였다. 희던 젓가  
슴이 바위처럼 변해 생을 무겁게 눌러버렸다.  
염을 하며 어머니의 몸을 보았다. '우리 염  
마 참으로 곱다'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. 주검  
을 두고 곱다는 말이 가담키나 할까만 어머  
니는 정말 고맙다. 여자의 몸은 무조건 가리  
라고만 한 어머니, 생전의 어머니에게서 볼  
수 있었던 유일한 속 몸은 젓가슴이었다. 등

을 돌리고 앉아 동생에게 젓을 먹일 때면 과  
장 없이 젓통이 야기 머리만이나 했다. 젓이  
줄줄 흘러나와 수건을 받쳐놓기도 하던 어머  
니의 가슴은 이때가 아마 가장 환하던 시기  
였으리라.

"노인과 여인"이라는 그림을 보면 젊은 여  
인이 늙은 남자에게 젓을 먹고 있다. 언뜻  
보면 외설적 표현에 불쾌한 느낌마저 든다.  
두 사람은 아버지와 딸 사이니 더욱 그렇다.  
그러나 사연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끄덕여진  
다. 젊은 여자가 딸 페로이고 늙은 남자는 아  
버지 키문이다. 아버지는 사형수로 감옥에  
감혀있다. 처형되는 날까지 음식을 반입이  
금지되어, 굶주리며 죽어가는 아버지가 안타  
까워 딸이 몰래 감방에 들어 젓을 먹인다. 효  
를 다 하는 그녀의 인간성이 영락없는 한국  
판 심정이다.

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여자의 젓은 거룩  
한 생명수다. 가슴에 고인 흰 젓으로 모성에  
의 극치를 보여준다. 여인의 젓은 그 자체로

성체이며 세상 만물의 어머니이다.  
삶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어머니의 젓이  
흘러넘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. 한쪽  
젓은 물고 한쪽은 두 손으로 감싸안아 생애  
최고의 성전을 만끽하고 싶다. 내려다보는 어  
머니의 눈 속에 내 눈 속 집어넣어 눈에 넣어  
도 아프지 않을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면...  
젓가슴이 아프지 않은 그 환하던 시절로 어머  
니를 돌려드리고 싶다. 청상의 외동딸로 자라  
홀시어머니를 모시는 가난한 집 만드느라  
고, 결혼할 당시의 아버지는 철부지 고등학생  
이었으니 마음속 응어리가 얼마나 깊었을까.  
속 시원히 울어보지 못한 어머니가 나에게 젓  
을 먹이던 순간만은 행복하지 않았을까.

એ제 '이삭꽃'이라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  
의 몫을 성실히 살아내고 몸 가벼워진 여인  
의 젓꼭지를 바라보는 내 눈이 시렸다. '자네  
피부색이 참 곱네!' 하며 자신의 젊은 날은 한  
사코 아끼는 그 말속에 상념과 연민이 스민  
듯해 등을 미는 두 손에 정성을 다했다. 기를

기라고는 없는 살갱이 이리저리 밀렸다.  
생의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헌신하신 그분  
앞에 두둑한 내 벋살이 송구스러웠다.  
머잖은 날에 내 가슴에도 초겨울의 스산함  
이 찾아오리라. 하지만 그날을 쓸쓸해하거나  
회한에 젓지 않겠다. 아니 마른 젓꼭지를 '이  
삭꽃'이라 당당히 내밀어 보이며 자랑스러워  
하겠다. 내가 이름 짓고 내가 피워 올린 생애  
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꽃, '이삭꽃'을!

**약력**

- ▲이삭꽃 명사, 식물 '수상화'와는 별개로 임의로  
의미를 부여한 가슴의 꽃
- ▲월간문학 수필등단, 시와사람 시  
등단
- ▲시집: '어린 애인', '꽃눈을 따라'
- ▲수필집: '눈썹을 밀며'



www.kjdaily.com



##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·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

지역의 품에서,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!!

**시내 지역**

- 중앙지국 222-8171
- 산수지국 224-4188
- 학운지국 673-6836
- 화정지국 372-9140
- 금호지국 376-7153
- 풍암지국 603-0311
- 노대지국 674-3581
- 상무지국 453-2554
- 광천지국 374-2120
- 진월지국 676-2726
- 봉선지국 673-6836
- 백운지국 673-0123
- 두암지국 266-1920
- 농성지국 362-4102
- 유동지국 222-8171
- 운암지국 529-3548
- 용봉지국 261-1503
- 신가지국 954-1420
- 양산지국 574-3745
- 하남지국 951-9954
- 운남지국 952-1687
- 오치지국 261-9461
- 문흥지국 261-9462
- 일곡지국 573-3200
- 첨단지국 971-7374
- 치명지국 371-9584
- 수완지국 955-0451
- 광신지국 944-0993

**지방 지사**

- 목포지사 061)270-8689
- 동목포지사 061)278-0740
- 남목포지사 061)245-3797
- 신안지사 061)980-8300
- 순천지사 061)746-1600
- 여수지사 061)651-6433
- 나주지사 061)335-0005
- 광양지사 061)793-6800
- 구례지사 061)782-4696
- 담양지사 061)383-5566
- 곡성지사 061)362-5746
- 고흥지사 061)832-6290
- 보성지사 061)852-6644
- 화순지사 061)373-7795
- 장흥지사 061)863-6800
- 강진지사 061)432-8899
- 해남지사 061)535-5849
- 영암지사 061)473-7151
- 무안지사 061)453-3645
- 함평지사 061)322-0882
- 영광지사 061)353-5133
- 장성지사 061)394-3636
- 완도지사 061)555-0134
- 진도지사 061)542-4330

▶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(구동1-21) ▶ 대표전화:062)650-2000 ▶ 구독문의:062)650-2022